

## 타인에 대한 범주주도적 처리가 공감에 미치는 영향

서 미 이수 원  
한양대 교육학과

본 연구는 타인을 지각할 때 범주주도적인 처리가 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타인의 특성을 역할이나 범주의 특성으로 지각하는 범주주도적인 처리를 하게 되면 개인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되어 공감이 저해될 수 있다. 이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피험자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범주화, 재범주화 및 탈범주화 처치를 가하였다. 범주화 조건은 성범주를 특출하게 하여 남여 성범주에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 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을 지각할 때 내외 집단으로 구분해서 타인을 지각하도록 만든 조건이다. 반면 재범주화 조건은 남여 범주를 하나의 단일 집단으로 묶어 범주경계를 재설정한 것이며, 탈범주화 조건은 범주경계를 해체하여 탈범주화한 것으로서 이 재범주화와 탈범주화 조건은 타인을 개인으로 지각하도록 만든 것이다. 각 세 조건에서 상대방의 생각과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론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공감적 정확성을 측정한 결과 범주화 조건에서는 상대방을 범주주도적으로 처리하여 개인의 개별적 정보를 무시함으로써 다른 두 조건에 비하여 공감적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얻어졌다.

공감(empathy)이란 타인의 감정과 심리상태 혹은 경험을 마치 나의 것처럼 느끼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내적 경험을 매순간 함께 느끼고 인지하는 능력이다. 상담 장면에서 공감이란 상담자와 내담자가 더불어 느끼는 것이며 상담자가 내담자의 눈을 통해 외부세계를 보고 이해하는 것이다.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 중심 상담가들을 포함한 많은 상담가들이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감이 상담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공감을 향상시키는 방법들도 많이 개발되었다(Truax & Carkuff, 1967).

그러나 공감을 증진시키는 요인의 정체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와있다. 최근에 Marangoni, Garcia, Ickes 및 Teng(1995)는 임상 장면에서 공감을 증진시키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결과 일관성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공감의 증진요인으로서 그동안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변인이 공감자와 피공감자간의 '관계의 질'이었다. 그런데 '관계의 질'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 공감적 이해와 관계의 질이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Kahn, 1970 : Noller & Ruzzene, 1991 : Ruzzene, 1990)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부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하였다(Floyd, 1988 : Gottman, 1979 : Kowalik & Gotlib, 1987 : Sillarn, Pike, Jones, & Murphy, 1984).

이런 상반된 결과에 대해 Blackstone, Simpson 및 Ickes(1995)는 기존의 연구들이 공감적 정확성과 관계의 친밀성만을 다루었음을 지적하면서, 공감적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관계의 친밀성과 함께 관계의 중요성과 관계의 위협성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로 친밀하고 중요한 관계 즉 '관계의 질'이 높은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없어 서로 위협적이지 않을 때는 상호간의 공감이 증가하지만, 이와 반대로 서로가 친밀하고 중요한 관계라 하더라도 갈등이 심하여 서로 위협적일 때는 상대적으로 공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공감자와 피공감자간의 '관계의 질'은 갈등의 유무에 따라서 공감에 정적인 효과도 가져오지만 부적인 효과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갈등이 없을 때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깊을수록 공감이 증가하지만, 갈등이 있을 때는 두 사람의 관계가 깊을수록 공감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갈등적인 관계에서는 '관계의 질'이 공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그동안 수행된 공감에 관한 연구들은 공감이 어떠한 조건에서 고양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지만 공감을 저해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왜 사람들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 본질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그동안 연구자들은 이와같은 질문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공감이

저해되는 과정에 관심을 표명한 Keefe(1976)는 이러한 전통에서 예외에 속한다. 그는 공감의 저해요인으로 인지적 왜곡에 주목하였다.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 높은 수준의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에 대한 초기 반응에서 인지적 왜곡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가 말하는 인지적 왜곡이란 내담자에 대한 지각에서 상담자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작용하는 것을 뜻한다. 즉, 이러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서 벗어날 때 내담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정관념(stereotype)은 특정집단이나 사회적 범주에속한 개인들의 특성을 개인의 개별적 특성보다는 범주의 특성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Brewer(1988)는 이같이 개인의 특성을 범주의 특성으로 지각하는 것을 범주주도적인 처리라고 하였다. 그는 타인을 지각하는 방식을 역할이나 범주로 지각하는 범주주도적인 처리(category-based process)와 개인특성으로 처리하는 개인주도적인 처리(person-based process)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면 'X는 간호원이다'라는 정보가 있을 때 'X를 간호원의 일원'으로만 지각하면 그를 범주주도적으로 지각한 것이며 '간호원을 X의 특성 중의 하나'로 지각하면 그를 개인주도적으로 지각한 것이다.

타인을 범주주도적으로 지각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게 도와주는 순기능도 있으나 타인을 '과잉단순화'하여 지각하는 오류를 낳게 되고 결국에는 타인이해나 공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즉 범주주도적으로 개인을 지각하게 되면 범주나 역할의 특성을 개인의 특성으로

잘못 지각하게 됨으로써 그 개인의 개별적인 특성을 무시되기 때문에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Keefe(1976)는 공감에 영향을 주는 한 요인으로서 인지적 왜곡을 거론하였지만 이를 실험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고정관념이 어떻게 공감을 저해하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을 고정관념에 의해 지각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이 어떻게 저해되는가를 밝히려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개인을 범주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조건과 개인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조건이 실험적으로 조작되었다. 실험조작을 위해 Gaertner, Mann, Murrell 및 Dovidio (1989)의 집단간 범주의 경계를 변화시키는 전략을 도입하였다. 이들은 모든 피험자들을 남여에 따라 집단으로 범주화시킨 후 집단간 범주의 경계를 변화시키는 전략으로 범주화, 재범주화와 탈범주화를 시도하였다. 범주화(categorization)는 남여 성범주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며, 재범주화(recategorization)는 남여 집단의 경계를 해체하여 상위범주로 재범주화하는 것이며, 탈범주화(decategorization)는 남여 집단의 경계를 제거함으로써 개인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재범주화나 탈범주화는 범주화에 비해 범주의 특출성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집단'에 동일시하기 보다는 '개인'에 동일시하도록 해준다. 즉, 재범주화나 탈범주화 조건은 타인을 개인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한 실험조건이다. 반면 범주화 조건은 내외집단 구분을 유지시킴으로써 타인을 범주주도적으로 처리하게 한 실험조건이다. 따라

서 범주화 조건에서는 타인들을 범주의 일원으로 동일시 하도록 해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정은 범주화 조건에서는 타인의 정체를 집단에 동일시하는 범주주도적인 처리를 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공감을 잘 못하는 반면에 재범주화나 탈범주화 조건에서는 타인의 정체를 '범주'가 아닌 '개인'에 동일시 하는 개인주도적인 처리를 함으로써 공감을 잘 할 것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공감은 지각자가 타인의 성격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는가와 타인의 일시적 생각이나 느낌을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는가의 두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공감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성격(personality)이나 기질(trait)과 같은 개인의 지속적 특성을 지각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지각하는가에 관심을 가졌었다(Rogers, 1957). 그리하여 특성추론의 정확성의 지표로서 평정자간의 일치도(interrater consensus)를 구하여 그것을 공감의 지표로 삼았다(Cronbach, 1955). 그러나 최근에 와서 공감의 지표는 개인의 일시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각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Ickes(1993)는 지각자가 타인의 느낌이나 생각을 정확하게 추론하는 공감적 정확성(empathic accuracy)이 대인간에 나타나는 공감의 정체를 잘 드러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피공감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공감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추론하는가를 알아봄으로써 공감적 정확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성격특성과 일시적 느낌의 두 가지 지표를 모두 이용해서 공감을 측정하였다.

## 방 법

### 피험자

피험자는 심리학을 수강하는 대학생으로 156명이 본 실험에 참가하였다. 피험자들은 남녀 3명씩 6명이 하나의 조로 구성되어 세가지 실험조건(범주화 조건, 재범주화 조건, 탈범주화 조건)에 각각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각 실험조건에는 6인(남자 3인과 여자 3인)이 일개조로 구성된 7-8개조가 있었다.

주화, 재범주화, 탈범주화 처치를 가하는 단계이다. 실험의 전체 절차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 1단계 : 성별주화 처치

남여 각각 3명씩 6명이 실험 대기장소에 모이면 본 연구의 목적이 집단 의사결정기술을 알아보는 데 있다고 소개한 뒤, 앞으로 주어질 과제에 대해 집단별 토론을 수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피험자들을 남녀 각각 3명씩 성에 따라 남자와 여자 집단으로 나누어 성범주화 처치를 하였다. 성범주화를 위해 남자는 파란색 이름표(A, B, C)중에서 여자는 주황색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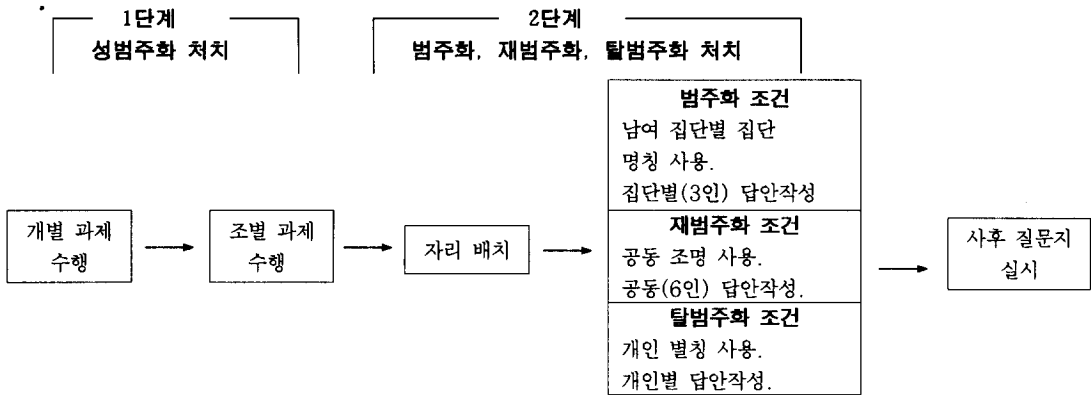


그림 1. 전체실험절차

## 실험절차

실험은 크게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 졌다. 첫번째 단계는 모든 피험자들에게 성범주화 처치를 가하는 단계이다. 두번째 단계는 성범주화 처치후 피험자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범

류표(가,나,다)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남녀 집단을 구성하였다. 집단 구성이 끝나면 대형 칸막이에 의해 공간이 나뉘어진 실험실 양편에 있는 테이블(왼쪽 테이블은 남자 집단, 오른쪽 테이블은 여자 집단)에 자신의 명찰명과 같은 자리를 찾아 앉게 하였다.

이어서 피험자들에게 토론 주제인 '남여의 직

업역할 분배문제'에 관한 두개의 상반된 입장(여권신장 반대의 입장과 여권신장 찬성의 입장)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시나리오를 읽은 뒤 오늘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남여가 서로 다른 직업이나 역할을 분배받게 된 이유(신체적인 구조차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남여의 능력차이, 여성의 주체성 부족, 사회제도상의 모순, 전통적인 인습)'에 대해 집단별 토론을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하였다. 집단별 토론을 거쳐 결정된 우선순위는 시나리오와 함께 제시된 답안지에 적게 하였다. 이때 기존에 갖고 있던 성범주에 의한 남여의 집단정체감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명칭을 지어 자신이 부착하고 있는 이름표와 답안지 상단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 2 단계 : 범주화, 재범주화, 탈범주화 처치

앞에서 집단별 토의를 거쳐 집단별로 답안을 작성하고 나면 집단별 과제수행을 위해 설치되었던 칸막이를 제거하고 실험실내의 테이블과 좌석배치를 실험조건에 맞추어 조정한 후 피험자들을 정해진 좌석에 옮겨 앉도록 하였다. 좌석배치는 실험조건에 따라 상이하며 이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와 단계는 지시문에 의해 통제되었다. 이때 지시문의 내용은 실험조건별(범주화, 재범주화, 탈범주화 조건)로 달랐으며 실험처치도 실험조건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가해졌다. 즉, 범주화 조건에서는 1단계의 성범주화의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처치하였다. 반면 재범주화 조건에서는 6명을 하나의 상위 집단으로 묶어 하나의 단일 범주로 1단계에서 나뉘어진 성범주를 재범주화함으로써 범주 경계를 재설정한 재범주화 처치가 이루어졌다. 탈범주화 조건에서는 범주 경계를 해체하여 6인 각각을 개별화시킨 탈범주화 처치가 이루어졌다. 이런 처치조작을 위하여 선행연구(Gaertner 등, 1989)에 따라 집단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시 세 가지 유형의 실험조작(집단 표상, 집단 정체감, 상호의존성)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다.

첫째, 실험조건별 집단 구성원의 표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좌석배치를 상이하게 조작하였다. 범주화 조건에서는 남여 성범주의 경계가 특출하도록 자리를 배치한 반면에 재범주화 조건에서는 성범주 경계가 특출하지 않도록 남여 집단 구성원 6명이 골고루 섞이도록 자리를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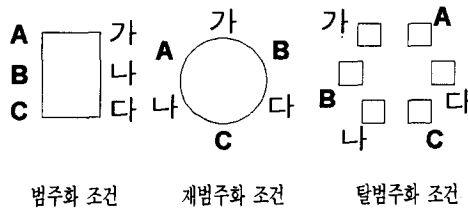


그림 2. 실험조건별 좌석배치 형태(A, B, C는 남자구성원이며, 가, 나, 다는 여자구성원임)

탈범주화 조건에서는 범주 경계를 해체하기 위해 개별 책상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앉게 하였다.

둘째, 실험조건별 집단 정체감을 변화시키기 위해 범주화 조건에서는 성범주화 단계에서 결정한 집단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재범주화 조건에서는 성범주화 단계에서 정했던 집단명칭을 버리고 6명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명칭을 새로 지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탈범주화 조건에서는 각 피험자들에게 성범주화 단계에서 지었던 집단명칭 대신에 개인을 대표할 수 있는 별명을 지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결정된 집단명칭과 별명은 피험자들이 부착하고 있는 명찰에 적게 하였다. 또한 결정한 우선순위를 발표하는데 있어서도 범주화 조건에서는 1단계에서 집단별로 결정한 순위를 집단명칭과 함께 상대집단에게 발표하게 한 반면 재범주화 조건에서는 1단계에서 결정한 집단별 순위를 6명이 다시 토론, 합의하여 단일한 답안을 제시하게 하였으며 탈범주화 조건에서는 1단계에서 집단별로 결정한 순위를 개인별로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개인별 결정 순위를 별명과 함께 다른 5명에게 발표하도록 하였다.

셋째 실험조건별로 참여자들간의 상호의존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범주화 조건에서는 실험에 참여한 3인 집단들 중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집단일수록 A-D까지의 학점중 높은 학점카드(동일한 점수의 3장)를 받게 된다고 하여 두 집단이 서로 경쟁하도록 하였다. 반면 재범주화 조건에서는 집단해결책이 다른 6인 집단의 해결책보다 효과적일수록 A-D까지의 학점 중 높은 학점카드(동일한 점수의 6장)를 지급한다고 하여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협조하도록 하였다. 탈범주화 조건에서는 개인별 문제 해결책이 다

른 개인들보다 효과적일수록 높은 학점카드(각기 다른 6장)를 지급한다고 하여 집단 구성원을 개별화시켰다.

## 중속변인 측정

### 1. 독립변인 조작검증

피험자들이 어떤 집단 표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6명이 같은 주제의 과제를 풀면서 하나의 집단 또는 두 집단, 또는 별개의 개인들의 집합이라고 확신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6명이 과제를 풀면서 두 집단이라고 느꼈는지, 한 집단이라고 느꼈는지, 아니면 별개의 개인이라고 느꼈는가'라는 진술 각각에 대해 피험자들이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7점 척도상(0점 : '전혀 확신하지 못한다'에서 6점 : '매우 확신한다'까지)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 2. 공감적 정확성의 측정

공감정도는 상호토론 과정에서 타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론하느냐의 공감적 정확성으로 측정하였다. 공감적 정확성의 측정은 6명으로 구성된 조원들간의 상호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공감적 정확성의 측정을 위해 모든 피험자들에게 먼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이 각각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를 추론하게 하였고 이어서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5인 각각에 대해서 '그는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시켰다. 그리하여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추론한 것(자신의 추정값)과 나에게 대하여

타인이 실제 지각한 것(타인의 지각값)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공감적 정확성을 측정하였다. 이때 판단은 두가지 차원에서 이루어 졌는데 한가지는 개인의 일시적인 생각이나 느낌인 호오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다른 한가지는 개인의 지속적인 특성인 성격특성에서 이루어 졌다.

**호오평가에서의 공감적 정확성 :** 타인들이 대상인물을 실제로 얼마나 좋아하는가(호오평가에서의 타인의 지각값)를 알아보기 위하여 호오차원에서 상호평정시켰다. 평정척도는 싫다(0점)와 좋다(6점)의 7점척도로 구성되었다. 또한 호오평가에서 타인의 지각에 대한 나의 추정(호오평가에서의 자신의 추정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도 위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타인의 지각값의 계산은 나를 제외한 5명이 나에게 대해 호오평가에서 평정한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하였고 자신의 추정값의 계산은 나를 제외한 5명이 각각 나에게 대해서 평가할 것이라고 내가 추측한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호오평가에서 타인의 지각값이 클수록 타인이 나를 호의적으로 본 것이며 자신의 추정값이 클수록 타인이 나에게 대해 호의적일 것이라고 내가 추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감적 정확성의 측정은 타인의 지각값과 자신의 추정값간의 차이의 절대값으로 지표화하였다.

**성격평가에서의 공감적 정확성 :** 성격평가에서의 공감적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남성성의 대표적 특성인 기능특성과 여성성의 대표적 특성인 친화특성에서 타인의 실제값과 자신의 추정값을 산출하였다. 기능특성 평가는 '의존적

이다(0점)-독립적이다(6점), 연약하다(0점)-강인하다(6점)'의 두 특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친화특성 평가는 '둔하다(0점)-섬세하다(6점), 무뚝뚝하다(0점)-상냥하다(6점)'의 두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타인의 지각값의 계산은 호오평가와 마찬가지로 나를 제외한 5명이 해당특성(기능특성과 친화특성)에서 나에게 대해 평정한 점수들의 평균으로 계산하였고 자신의 추정값의 계산은 5명이 나를 해당특성(기능특성과 친화특성)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고 추론한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성격특성에서 타인의 지각값이 클수록 타인이 나를 해당특성으로 지각한 것이며 자신의 추정값이 클수록 타인이 나에게 대해 해당특성으로 지각할 것이라고 내가 추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격특성에서의 공감적 정확성의 측정은 호오평가에서의 공감적 정확성의 측정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지각값에서 자신의 추정값간의 차이의 절대값으로 지표화하였다.

## 결 과

### 1. 독립변인 처치검증

독립변인 처치(범주화, 재범주화, 탈범주화)가 이루어 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6명이 과제를 풀면서 두 집단이라고 느꼈는지, 한 집단이라고 느꼈는지, 아니면 별개의 개인이라고 느꼈는지'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실험조건별 집단 표상 정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6명으로 구성된 조원들간의 상호작용을 남겨 두집단으로

표 1. 실험조건별 구성원들의 집단 표상 확신도 평균(표준편차)

실험조건	집 단 표 상		
	두 집 단	한 집 단	개 인
범주화(n=42)	4.64(1.36)	1.76(1.28)	1.76(1.27)
재범주화(n=54)	3.02(1.57)	3.44(1.31)	2.26(1.63)
탈범주화(n=48)	3.08(1.78)	2.31(1.48)	3.52(1.74)

느끼는 정도에 있어서는 범주화 조건(평균 =4.64)이 재범주화 조건(평균=3.02)이나 탈범주화 조건(평균=3.08)보다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고 [F(2,141) =14.98, p<.001] , 한집단으로 느끼는 정도에 있어서는 재범주화 조건(평균=3.44)이 탈범주화 조건(평균=2.31)이나 범주화 조건(평균=1.76)보다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F(2,141)=19.40, p<.001] , 별개의 개인이 모인 집합이라고 느끼는 정도에 있어서는 탈범주화 조건(평균=3.52)이 재범 =1.76)보다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F(2,141)=15.37, p<.001] .

이러한 결과는 범주화 조건의 경우는 피험자들이 조원들간의 상호작용을 남·여라는 두개의 집단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재범주화 실험조건의 경우는 6명과의 상호작용을 6명이 마치 하나의 집단인 것처럼 지각하며, 탈범주화 실험조건의 경우는 6명과의 상호작용을 집단 구분의 개념이 없이 각 구성원 개 주화 조건(평균=2.26)이나 범주화 조건(평균 개인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인 처치가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표 2. 호오평가에서 타인의 지각값과 자신의 추정값간 차이의 절대값 평균(표준편차)

실험조건	대 상 인 물	
	남	여
범 주 화		
남(n=21)	1.43(.93)	1.79(.57)
여(n=21)	1.06(.64)	1.31(.80)
재 범 주 화		
남(n=27)	.94(.54)	.91(.50)
여(n=27)	.83(.44)	.83(.50)
탈 범 주 화		
남(n=24)	1.02(.79)	.97(.55)
여(n=24)	.99(.46)	1.19(.69)



## 2. 공감적 정확성

### 호오평가에서의 공감적 정확성

호오평가에서 공감적 정확성이 실험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타인이나에 대해서 지각한 값(타인의 지각값)과 타인의 지각에 대한 자신의 추정값(자신의 추정값)간의 차이의 절대값을 산출하였다. 표 2는 이 차이의 절대값을 구하여 실험조건별로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점수가 클수록 타인의 지각과 자신의 추정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생각에 대해 공감적 정확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를 보면 호오평가에서 타인의 지각값과 자신의 추정값간의 차이의 절대값이 재범주화(평균=.88)나 탈범주화 조건(평균=1.04)보다 범주화 조건(평균=1.40)에서 크게 나타나 범주화 조건의 피험자들은 재범주화나 탈범주화의 피험자들보다 공감적 정확성이 낮았다. 표에 제시된 평균점수를 가지고 실험조건(3)×피험자의

성(2)×대상인물의 성(2)의 3원 변량분석을 한 결과 실험조건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이것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다 [ $F(2,138)=15.22, p<.001$ ]. 그러나 이 분석에서 피험자의 성 × 대상인물의 성의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아 [ $F(1,138)=3.10, ns$ ] 내집단(남자 피험자들에게는 대상인물 남자들이, 여자 피험자들에게는 대상인물 여자들이)에 대한 공감적 정확성과 외집단(남자 피험자들에게는 대상인물 여자들이, 여자 피험자들에게는 대상인물 남자들이)에 대한 공감적 정확성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조건 × 피험자의 성 × 대상인물의 성의 3원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아 [ $F(2,138)=1.77, ns$ ] 실험조건에 따라서도 내집단, 외집단에 대한 공감적 정확성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표2의 점수들은 타인의 지각값과 자신의 추정값간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차이점수가 타인의 지각값이

표 3. 호오평가에서 타인의 지각값과 자신의 추정값의 평균(표준편차)

실험조건	타인의 지각값		자신의 추정값	
	남	여	남	여
범주화				
남(n=21)	5.45(1.07)	4.14(.62)	5.02(1.23)	3.65(1.51)
여(n=21)	4.67(.52)	5.93(.62)	3.89(.63)	5.14(1.01)
재범주화				
남(n=27)	5.26(.73)	4.69(.63)	5.06(.82)	4.37(.74)
여(n=27)	4.56(.55)	5.30(.82)	4.35(.57)	4.94(.94)
탈범주화				
남(n=24)	5.23(.82)	4.17(.49)	5.04(1.10)	4.31(.90)
여(n=24)	4.39(.72)	2.33(.95)	4.13(.60)	4.98(.97)

자신의 추정값보다 커서 생긴 것인지 이와 반대인지 알 수 없다. 그리하여 표 3에서는 타인의 지각값과 자신의 추정값간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계산하지 않고 방향을 고려한 실제값으로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표에서 타인의 지각값이 클수록 타인들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며 자신의 추정값이 클수록 타인들이 자신을 좋아하리라고 추론한 것이다.

표 3의 결과에서 실험조건에 따라 공감적 정확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타인의 지각에서 자신의 추정을 뺀 값에 대해 실험조건(3) × 피험자의 성(2) × 대상인물의 성(2)의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조건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F(2,138)=3.77, p<.05]$  타인의 지각에서 자신의 추정을 뺀 값이 재범주화(평균=.27)나 탈범주화 조건(평균=.15)보다 범주화 조건(평균=.62)에서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사람들은 타인들이 실제로 평가한 정도보다 타인들이 자신을 덜 좋아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이 범주화 조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분석에서도 피험자의 성 X 대상인물의 성의 2원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아  $[F(1,138)=.38, ns]$  타인의 지각에서 자신의 추정을 뺀 값이 내집단(남자 피험자들에게는 대상인물 남자들이, 여자 피험자들에게는 대상인물 여자들이)과 외집단(남자 피험자들에게는 대상인물 여자들이, 여자 피험자들에게는 대상인물 남자들이)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조건 × 피험자의 성 × 대상인물의 성의 3원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아  $[F(2,138)=.49, ns]$  타인의 지각에서 자신의 지각을 뺀 값이 실험조건에 따라서

내외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격평가에서의 공감적 정확성

성격평가에서의 공감적 정확성은 기능특성과 친화특성에서의 공감적 정확성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여기서 기능특성은 남성성을 대표하는 특성이며 친화특성은 여성성을 대표하는 특성이다. 표 4는 실험조건별로 공감적 정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능특성 평가에서 타인의 지각값과 자신의 추정값의 차이의 절대값과, 친화특성 평가에서 타인의 지각값과 자신의 추정값의 차이의 절대값을 산출하여 그 값을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점수가 클수록 타인의 지각값과 자신의 추정값간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성격평가에서 공감적 정확성이 낮은 것이다.

표 4에서 제시된 기능특성에서의 타인의 지각값과 자신의 추정값간 차이의 절대값이 실험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실험조건(3) × 피험자의 성(2) × 대상인물의 성(2)의 3원 변량분석을 한 결과 실험조건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여  $[F(2,138)=22.31, p<.001]$  타인의 지각값과 자신의 추정값간 차이의 절대값이 재범주화(평균=.97)나 탈범주화 조건(평균=1.26)보다 범주화 조건(평균=1.56)에서 크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공감적 정확성이 다른 두조건보다 범주화 조건에서 낮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피험자의 성 × 대상인물의 성간의 2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여  $[F(1,138)=10.25, p<.01]$  내집단(남자 피험자가 대상인물 남자를 그리고 여자 피험자가 대상인물 여자를)을 평가할 때보다 외집단(남자 피험자가 대

표 4. 성격평가에서 타인의 지각값과 자신의 추정값간의 차이의 절대값 평균(표준편차)

실험조건	기능특성		친화특성	
	남	여	남	여
범주화				
남(n=21)	1.27(.65)	1.90(.36)	1.36(.65)	1.79(.70)
여(n=21)	1.79(.56)	1.25(.70)	1.73(.57)	1.48(.77)
재범주화				
남(n=27)	1.00(.61)	.86(.41)	1.02(.45)	.94(.39)
여(n=27)	.94(.42)	1.06(.58)	.93(.32)	.81(.36)
탈범주화				
남(n=24)	1.06(.41)	1.42(.62)	1.26(.46)	1.20(.47)
여(n=24)	1.10(.69)	1.44(.78)	1.19(.48)	1.25(.59)

상인물 여자를 그리고 여자 피험자가 대상인물 남자를)을 평가할 때 그 차이의 절대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람들이 내집단보다 외집단을 평가할 때 공감적 정확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간 차이의 절대값이 범주화 조건에서는 내집단보다 외집단에서 매우 크게 나오는 반면 재범주화나 탈범주화 조건에서는 내외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범주화 조건에서는 다른 두조건에서보다 내외집단간 공감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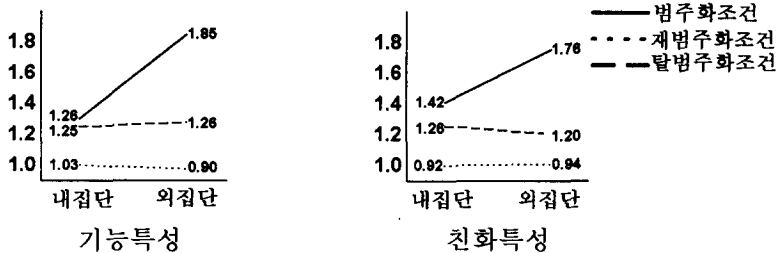


그림 3. 성격평가에서 타인의 지각값과 자신의 추정값간 차이의 절대값 평균

그리고 이 경향은 실험조건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그림 3을 통해서 살펴보면 기능특성에서 타인의 지각값과 자신의 추정값

정확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실험조건 X 피험자의 성 X 대상인물의 성의 3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남으로써

뒷받침되었다 [F(2,138)=10.36, p<.001] . 이와 같은 추세는 친화특성에서 타인의 지각값과 자신의 추정값의 차이의 절대값에 대해 실험조건(3)×피험자의 성(2)×대상인물의 성(2)의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추세로 나타났다. 즉 친화특성에서도 실험조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F(2,138)=29.84, p<.01] 범주화 조건(평균=1.59)에서는 재범주화(평균=.93)나 탈범주화 조건(평균=1.23)보다 타인의 실제값과 자신의 추정값의 차이의 절대값이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범주화 조건에서는 다른 두조건에서보다 공감적 정확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타인의 지각값과 자신의 추정값의 차이의 절대값이 범주화 조건에서는 내집단보다 외집단에 대해 큰 반면 재범주화나 탈범주화 조건에서는 내외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주화 조건에

서는 내집단보다는 외집단에 대해 공감적 정확성이 큰 반면 재범주화나 탈범주화 조건에서는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공감적 정확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실험조건 X 피험자의 성 X 대상인물의 성의 3원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었다 [F(2,138)=5.12, p<.01] .

한편 성격특성에서 실험조건에 따라 공감적 정확성이 왜 차이가 나는지 알아 보고자 타인의 지각값과 자신의 추정값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환산하지 않고 실제값으로 산출하여 그 값을 표 5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타인의 지각값이 클수록 타인이 나에게 대해 해당특성(기능특성, 친화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각한 것이며 자신의 추정값이 클수록 타인이 나에게 대해 해당특성(기능특성, 친화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각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정도가 큰 것이다.

표 5. 성격특성에서의 타인의 지각값과 자신의 추정값의 평균 (표준편차)

실험조건	기 능 특 성				친 화 특 성			
	타인의 지각값		자신의 추정값		타인의 지각값		자신의 추정값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범주화								
남(n=21)	4.95(.74)	4.74(.84)	4.82(.80)	4.48(.76)	4.02(1.00)	3.90(.82)	4.19(1.00)	4.02(.73)
여(n=21)	4.41(.96)	4.85(1.13)	4.53(.57)	4.71(.80)	4.48 (1.11)	5.10(1.46)	3.97(.81)	4.26(.79)
재범주화								
남(n=27)	4.58(.91)	4.86(.90)	4.75(.89)	4.65(.81)	4.46 (.85)	4.39(.84)	4.28(.83)	4.19(.76)
여(n=27)	4.56(.78)	5.15(.98)	4.88(.67)	4.98(.71)	4.59 (.82)	5.03(1.03)	4.65(.76)	4.79(.73)
탈범주화								
남(n=24)	4.89(1.09)	4.97(.54)	4.79(.68)	4.47(.57)	4.54 (.86)	3.81(.95)	4.26(.91)	4.03(.79)
여(n=24)	4.49(.81)	4.67(.88)	4.69(.60)	4.94(.95)	4.73 (.97)	4.83(1.16)	4.31(.64)	4.54(.65)

표 5에 나와 있는 점수들을 가지고 실험 조건별로 공감적 정확성이 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타인의 지각값에서 자신의 추정값을 뺀 후에 그 값을 가지고 실험조건(3)×피험자의 성(2)×대상인물의 성(2)×성격특성(2)의 4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피험자의 성×성격특성의 2원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F(1,138) = 14.89, p < .001$  타인의 지각값에서 자신의 추정값을 뺀 값이 기능특성 평가에서 남자 피험자(평균=.21)가 여자 피험자(평균=-.13)보다 더 크며, 친화특성에서는 여자 피험자(평균=.36)가 남자 피험자(평균=.01)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남자는 타인들이 실제로 자신을 기능적이라고 평가하는 정도보다 타인들이 자신을 덜 기능적으로 볼 것이라고 추정하는 반면 여자는 타인들이 실제로 자신을 친화적이라고 평가하는 정도보다 타인들이 자신을 덜 친화적으로 볼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결과는 실험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즉 실험조건×피험자의 성×성격특성의 3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F(2,138) = 3.45, p < .05$ ]. 그림 4는 실험조건별로 이 결과를 그림으로 도시화한 것이다.

그림 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범주화 조건에서 타인의 지각에서 자신의 추정을 뺀 값이 기능특성에서 남자 피험자(평균=.21)가 여자 피험자(평균=-.02)보다 큰 반면 친화특성에서는 여자 피험자(평균=.64)는 남자 피험자(평균=-.14)보다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재범주화나 탈범주화 조건에서는 성에 따라서 기능특성 평가와 친화특성 평가간에 별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때 범주화 조건에서 타인들은 대상인물이 남자일 경우에는 기능적이라고 보는 반면에 이와 반대로 대상인물이 여자일 경우에는 친화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정작 대상인물 자신은 자신을 이와 같이 성에 따라서 고정관념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이 범주화 조건에서 유독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남녀 성범주에 따라서 범주화되었을 때에는 사람들은 타인을 평가할 때 범주의 특성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증가하지만 자신을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추정할 때에는 범주의 특성으로 지각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는 타인을 지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범주주도적인 처리가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았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조건을 범주주도적 처리를 하는 조건과 개인주도적인 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나누고 실험조건에 따라서 공감적 정확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 보았다. 실험조건에 따라 공감적 정확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타인의 지각값과 이에 대한 자신의 추정값간의 차이의 절대값을 호오반응과 성격특성의 두가지 차원에서 계산하였다. 그 결과, 재범주화나 탈범주화 조건에서보다 범주화 조건에서 그 차이의 절대값이 크게 나와 공감적 정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실험조건에 따라 공감적 정확성에서 이와 같은 차이가 왜 나타나는가를 알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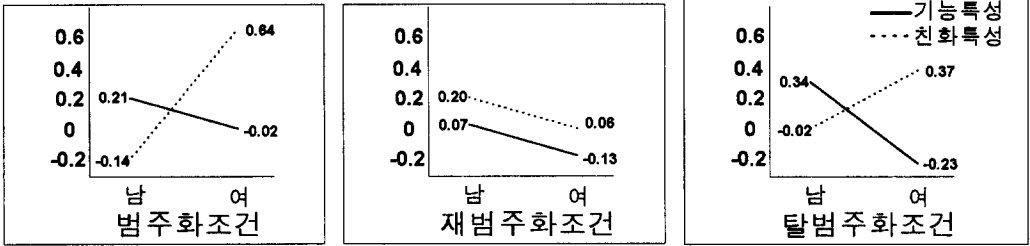


그림 4. 성격특성에 대해 타인의 지각에서 자신의 추정을 뺀 값의 평균

기 위해서 성격특성 평가에서 절대값을 산출하기 전에 실제 얻어진 값을 가지고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개인의 성격특성에 대한 타인의 지각값과 이에 대한 자신의 추정값간에 차이를 방향을 살려 분석한 결과 범주화 조건에서 타인의 지각값과 이에 대한 자신의 추정값간의 차이의 방향에서 일관성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남자는 친화특성보다 기능특성에서 그리고 여자는 기능특성보다 친화특성에서 타인의 지각값이 자신의 추정값보다 크게 나타나 타인들은 개인을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지각하는 반면에 개인은 자신을 고정관념에 의해 추정하지 않고 자신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추론한다는 결과가 얻어졌다. 타인들은 평정대상인물이 남성인 경우에는 남성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그를 지각하며 한편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지각한다. 반면 개인들은 자신의 고유한 개별적 특성에 따라서 자신의 특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재범주화나 탈범주화의 두조건보다 범주화 조건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범주화 조건에서 사람들은 개인을 범주의 일원으로서만 지각한다. 따라서 개인의 특성도

범주의 특성으로서 동일시 한다. 반면 개인은 자신을 범주의 특성으로 규정짓지 않고 자신만이 갖고 있는 개별적 특성으로 동일시 한다. 이러한 타인을 지각하는 방식과 자신을 지각하는 방식에서의 차이가 앞에서 공감적 정확성으로 지표화한 타인의 지각값과 자신의 추정값간의 차이의 절대값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그 차이로 인해 범주화 조건에서는 재범주화나 탈범주화 조건에서보다 이 차이의 절대값이 크게 나온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본 연구에서 내외집단간의 공감적 정확성의 차이의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내외집단 구분에 따라 공감적 정확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내집단(남자 피험자에게는 대상 남자, 여자 피험자에게는 대상 여자)과 외집단(남자 피험자에게는 대상 여자, 여자 피험자에게는 대상 남자)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상인물에 대한 성격특성 평가에서 내집단보다 외집단에 대해 공감적 정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같은 경향성이 범주화 조건에서는 다른 두조건에서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결과는 그동안 정보처리에서 내외집단간의 차이

에 대한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Ostrom, Carpenter, Sedikides 및 Li (1993)는 사람들이 내집단원에 대한 정보와 외집단원에 대한 정보를 차별적으로 처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내집단원에 대해서는 개인주도적 처리(person-based processing)를 하는 반면에 외집단원에 대해서는 범주주도적 처리(category-based processing)를 한다. 이렇게 볼 때 공감적 정확성이 외집단원에 대해서보다 내집단원에 대해서 크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외집단원에 대해서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서 범주주도적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범주화 조건에서 공감적 정확성이 떨어지는 원인은 사람들이 개인을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서 범주주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정관념은 개인의 특성을 범주의 특성으로 동일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을 고정관념에 입각해서 지각하게 되면 그의 개인적 특성은 무시될 수 밖에 없다. 고정관념에서는 동일한 범주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게 하는 것이다. Taylor, Fiske, Etcoff 및 Ruderman (1978)은 타인의 인상을 형성할 때 일차적으로 인종이나 성범주의 특성에 기초하여 타인을 범주화한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들의 실험에서 피험자들에게 백인 5명과 흑인 5명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토론하는 장면을 관찰시켰다. 토론을 관찰한 후 피험자들에게 토론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제시하고, 그것을 누가 말했는지 회상하도록 하였다. 이때 종속변인은 제시된 이야기를 말한 인물에 대한 회상에서 범한 오류였다. 이 연구에서 사람들은 이

야기를 말한 사람의 인종에 대해서는 오류를 적게 범하는 반면에 인종내에서 그 이야기를 누가 했는가에 대해서는 오류를 많이 범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범주간 오류보다는 범주내 오류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 사실은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한 개인들을 지각할 때 개별적인 '개인'으로서 지각하기 보다는 인종이라는 '범주'로서 지각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고정관념은 '개인'을 '범주'로서 지각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때 개인들간의 고유한 개별적 특성은 모두 무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개별적 특성의 이러한 무시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개인에 대한 공감을 저해하는 기본적인 장애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담장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연령이나 성, 이전의 병력 등의 고정관념에 의해 내담자를 지각함으로써 내담자를 개별적인 개인으로 보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부문제를 가지고 온 여자 내담자를 남성 상담자가 상담하는 경우 내담자를 개별적인 개인로 보기 보다는 결혼한 여성이라는 범주에 의해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상담자는 내담자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공감하기 보다는 '결혼한 여자라면 어떠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의해 내담자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역할이나 범주의 특성으로 지각하기 보다 개인의 특성으로 지각할 때 보다 더 깊은 공감을 이룰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Blackstone, Simpson, & Ickes(1995). When the Head Protects the Heart : Empathic Accuracy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629-641.
- Brewer, M. (1988). A dual process model of impression formation. In T. K. Srull and R. S. Wyer(Eds.), *Advances in Social cognition : Vol.I : A dual process model of impression formation* (pp.1-36). Hillsdale, NJ: Erlbaum.
- Cronbach, L. J.(1955). Processes affecting scores on "understanding of others and assumed similarity." *Psychological Bulletin*, 52, 177-193.
- Floyd, F. J.(1988). Couples' cognitive/affective reaction to communication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523-532.
- Gaertner, S. L., Mann, J., Murrell, A., & Dovidio, J. F.(1989). Reducing intergroup bias : The benefits of re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239-249.
- Gottman, J. M.(1979). *Marital interaction : Experimental inventions*. New York : Academic Press.
- Ickes, W.(1993). Empathic accuracy. *Journal of Personality*, 61,587-609.
- Kahn, M.(1970). Nonverbal Communication and marital satisfactory. *Family Processes*, 9, 449-456.
- Keefe, T.(1976). Empathy : The critical skill. *Social Work*, 21, 10-14.
- Kowalik, D. L., & Gotlib, I. H.(1987). Depression and marital interaction : Concordance between intent and perception and communic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 127-134.
- Marangoni, C., Garcia, S., Ickes, W., & Teng, G.(1995). Empathic Accuracy in a Clinically Relevant Set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854-869.
- Noller, P., & Ruzzene, M.(1991). communication in marriage ; The influence of affect and cognition. In G. J. O. Fletcher & F. D. Finch (Eds.), *Cognition in close relationships* (pp.203-233). Hillsdale, NJ : Erlbaum.
- Ostrom, T. M., Carpenter, S. L., Sedikides, C., & Li, F. (1993). Differential processing of in-group and out-group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21-34.
- Rogers, C. R.(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95-103.
- Ruzzene, M.(1990). *Attributional processes in marriage : Judgements of cognition*.



- affect, and causality in conflict interaction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 Sillars, A. L., Pike, G. R., Jones, T. S., & Murphy, M. A. (1984).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in marriag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0*, 317-350.
- Taylor, J. C., fiske, S. T., Etcott, N., & Ruderman, A. (1978). The categorical and contextual bases of person memory and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778-793.
- Truax, C. B., & Carkhuff, R. R. (1967). *Toward effectiv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hicago : Aldine

## The Effects of Category-based Process of Others on Empathy

Mi Seo and Soo-Won Lee

Department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hypothesis that the category-based process will reduce the accuracy in the perception of empathy for the target person because the target's individualistic information is not perceived as salient. Six undergraduate students (3 males and 3 females) participated at once in this experiment and were randomly assigned into one of the three groups in which their identities were differently manipulated. In the gender-based identity condition, the categorization condition, participants' gender identity was treated to be salient. It was reasoned that subjects will perceive others by means of differentiation in-group from out-group on the basis gender. In the group-based identity condition, the recategorization condition, subjects were instructed to identify themselves as members belonging to the same group. Finally in the individual-based identity condition, the decategorization condition, subjects were instructed to identify themselves in terms of their own nicknames. Thus both gender and group identities were eliminated. Conforming the predictions, the results indicated that subjects in the gender-based identity condition showed lower accuracy in the perception empathy as compared to the accuracy obtained in the other two conditions.